

##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조사결과, 한국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35%

-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험성 높아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 The Software Alliance, [www.bsa.org](http://www.bsa.org))는 불법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공격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컴퓨터 사용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3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본 결과는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가 실시한 최신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 라이선스 준수를 통한 기회의 포착(BSA Global Software Survey: *Seizing Opportunity Through License Compliance*)'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2013년 실시한 동일 조사 대비 3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국내 다수의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한국 내 주요 트렌드의 영향을 받는다. 전체 PC 시장은 축소되고 있지만 그 중 기업용 PC 대비 개인용 PC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률이 증가하는 '소비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과,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감소했다.

BSA 글로벌 회장 겸 CEO인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A. Espinel)은 "보고서를 통해 강조된 것과 같이, 기업이 자사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CIO들이 시스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용 범위 또는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 IT 관리자, 기업의 PC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조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악성코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공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도 크다. 2015년 한 해 동안,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지출한 비용은 4천억달러 이상이었다.

그 밖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전세계 컴퓨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중 39%가 불법으로, 2013년 43%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 은행, 보험, 증권 등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정 산업군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세계적으로 25%를 기록,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CIO들은 직원 중 15%가 네트워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모르고 사용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직원의 비율은 추정치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26%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사결과는 문제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보여준다.

- CIO들은 보안사고 등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실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 또한 CIO들이 회사 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립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도 보안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에서, 60%의 직원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주요한 이유로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보안 위험을 들었다.

BSA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 SAM)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축한 기업들의 경우 자사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합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자사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사용만료를 관리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비즈니스와 완전히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도출된 지역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평균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2013년 BSA의 조사 결과 대비 1 포인트 감소한 61%를 기록했다.
- 두 번째로 평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높은 지역은 중부유럽 및 동유럽 지역으로 2013년 대비 3 포인트 감소, 58%를 기록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 지난 조사 대비 2 포인트 감소한 5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 북미 지역의 평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17%를 기록했으며,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구분 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상업적 가치 100억달러에 해당한다.
- 서유럽 지역은 1 포인트 감소하며 28%를 기록했다.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 라이선스 준수를 통한 기회의 포착'의 국가별 데이터 분석은 웹사이트([www.bsa.org/globalstudy](http://www.bsa.org/globalstud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소개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 The Software Alliance ([www.bsa.org](http://www.bsa.org)))는 각국의 정부 및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세계적인 ICT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멤버사로 두고 있다. 멤버사들은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는 기술 혁신 활성화 및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 정책을 지원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료 문의>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김잔디 대리

Tel. +82 2 737 2947

Email: [Jkim@hoffman.com](mailto:Jkim@hoffman.com)